

푸르미 자연 환경 학교 활동 보고서

주제: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자연 환경 학교 운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주지회

2003년도 푸르미 자연 환경 학교 주요 일지

- ▶3월 29일 입학식
감자심기
부처못 1차 탐사

- ▶5월 3일 고추 가지 방울토마토 모종심기

- ▶5월 31일 지주세우기, 물주기,
부처못 2차 탐사

- ▶6월 3일 옥수수 땅콩 모종심기

- ▶6월 28일 김매기, 거름주기, 감자수확 및 삶아먹기
부처못 3차 탐사

- ▶7월 12일 김매기, 고추, 가지 수확하기
부처못 4차 탐사

- ▶7월 26일 ~ 27일 여름 숲속 학교

- ▶8월 23일 옥수수 삶아 먹기, 풀뽑기, 농작물 수확, 무씨 뿌리기
5차 탐사

- ▶9월 27일 고구마캐기
6차 탐사

- ▶10월 18일 땅콩캐기, 땅콩 구워먹기, 땅콩 삶아먹기

- ▶11월 22일 무뽑기, 밭정리

- ▶12월 27일 ~ 28일 겨울 철새 학교

- ▶2004년 2월 수료식 예정

I. 농사체험활동

과거에 우리들은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를 텃밭에서 직접 키우고 가꾸었기 때문에 먹거리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으며 재배 체험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시화·산업화된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들이 농민들의 땀으로 얻어진 것들이 아니라 가게에서 쉽게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우리의 생활이 생산적인 구조보다는 소비적인 구조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도 점점 소비적이고 즉흥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환경 체험 활동에서는 1년 동안 아이들이 자기 가정의 식탁에 올릴 먹거리를 재배하기 위해 직접 밭고랑도 매고, 모종을 심고, 씨를 뿌리고, 풀도 뽑고, 벌레도 잡아 주고, 거름도 주고, 농사일지도 기록하는 등 농사 체험 활동을 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1. 기쁨심기 - 모종심기

모종 심기는 농사 체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새로운 생명을 키워내는 첫 번째 활동이기 때문이다.

환경학교에서 심은 모종은 고추·가지·방울토마토·오이·고구마·땅콩·옥수수이다. 상추·깻잎·열무·무는 씨앗으로 뿌렸다.

고추·가지·방울토마토·오이·고구마·감자 모종은 시장에서 구입했으며 땅콩과 옥수수는 미리 씨앗을 파종 한 모종으로 직접 키워 심었다.

이 때 아이들은 풍성한 수확을 기다림과 정성을 다하는 농부의 아름다운 마음을 배우게 된다. 아이들이 농사일지에 기록한 글을 보면 기다리는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모종심기>



<감자심기>

<농사일지에 쓴 글 3>

오늘 푸르미 자연 환경 학교에서는 옥수수, 땅콩, 김대기를 했다. 그리고 지주대 세우긴가 하튼 더 세우기도 했다. 맨 처음에 옥수수를 심었는데 하도 정신없이 심어서 어떻게 심는지 다 까먹어 버렸다. 하지만 옥수수는 종이컵에 있어서 빼기 쉬웠고 땅콩은 플라스틱 통에 되어있고 흙이 안 좋아서 빼기가 참 힘들었다. 그리고 김대기를 하고 풀도 뽑고... 내가 한 곳에는 풀이 별로 없어서 흙만 부드럽게 해서 끌어 올렸다. 그런데 다 하고 나니 골고루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첨부터 했다. 좀 힘들긴 했지만 지렁이가 안 나와서 다행이었다. 그리고 거의 다 끝날 무렵, 감자가 열린 것을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 줄려고 하시다가 실수로 감자를 캐셨다. 그 감자는 아직 자라지 않아서 인지 좀 작고 귀여웠다. 나중에는 우리가 캔 감자를 꼭 먹고 싶다.

2. 기쁨키우기 - 풀뽑기

6월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풀들이 자라기 시작하여 9월까지의 하루가 다르게 작물과 풀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자라기 시작한다. 환경학교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사람 손으로 일일이 다 뽑아야한다. 정말 힘든 시간이다. 아이들도 모종을 심거나 수확의 기쁨을 쉽게 누릴 수 있지만 풀을 뽑는 고통후의 기쁨을 아직까지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수확의 기쁨도 느끼지 못하지만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다.



<풀뽑기>



<풀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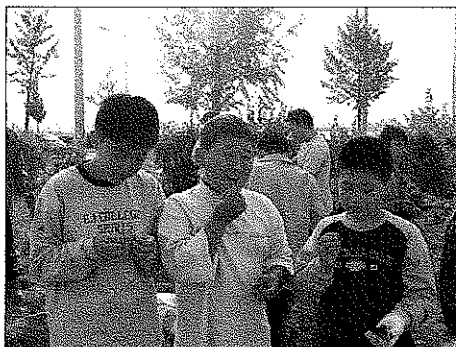
<농사일지에 쓴 글 4>

우리가 저번에 심은 감자랑 토마토 고추등 많이 자라고 있었다. 우리는 가서 김을 매고 또 머더라.. _ _ :::: 생각이 안나지만 흙을 공기가 통하게 하는거나 머라나 그 일을 하고 나니 팔이 아프고 손가락 마디가 막 쑤셔 왔다. 농부나 우리 할머니가 이 아픔을 견뎌가며 계속 하다니 정말 존경스러웠다. 많이 하다가 선생님께서 휴식을 주시면서 아이스크림을 나눠 주시며 아이스크림 다 먹고 쉬어라며.. 선생님께서 들도 우리가 할 땐 쉬시던 선생님께서 교체를 해서, 선생님들이 땀을 송골송골 대히며 일을 하셨다. 옥수수 모종을 심는데, 땅을 파니 안파져 아주 힘들게 팠다. 내가 모종을 2개 심으면, 미리는 3개를 심었다. 다른 애들이 다 심고 2개~3개가 남았는데 어떤 선생님께서 삽으로 땅을 파주시며 거기에 심어라고 하셨다. 내가 심고 있는데 미리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 놀라 바라보았더니."지렁이야"라며 벌악에 가까운 소리를 질러댔다. 다 심고 돌을 줍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각자 차를 타고 집으로 갔다

3.기쁨나누기 - 수확물 나누어 갖기

농사 체험 활동에서 가장 재미있고 기쁜 시간들이다. 참여한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은 신났다. 수확물을 거두는 아이들의 모습, 거둔 수확물을 보며 굉장히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 활동 후 집에 갈 때 한 보따리씩 안고 가는 모습 속에서 그 동안 심고 가꾸었던 보람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수확한 감자·고구마·땅콩을 같이 삶아 먹는 시간은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에게 기쁨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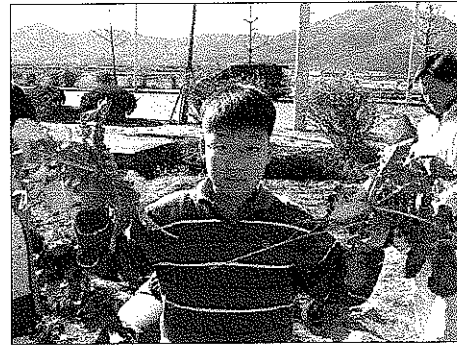
<땅콩 먹기>



<감자 삶아 먹기>



<감자수확>



<무 수확>



<망콩 수확>



<고구마 수확>

<농사일지에 쓴 글 5>

6월 28일 푸르미 밭에서 풀을 뽑고 감자도 캐다. 특히 감자를 별견 했을 때 그 느낌이 좋았다. 하나 들...구슬 같은 것도 있고, 주먹만한 것도 있었다. 우리가 캐 감자는 경주공고 가서 삶아 먹었다. 먹기 전 선생님들이 따놓으신 상추, 고추, 깻잎 등을 조금씩 나눠 가졌다. 감자는 소금을 뿌려 먹으니 맛있었다. 우리가 직접 캐서 먹으니 더 맛있었다. 다음에는 무엇이든 열심히 해서 많이 먹자.

<농사일지에 쓴 글 6>

이제껏 심은 식물 주위에 있는 풀을 뽑았다. 잘 빠지는 것도 있었지만 왜 그렇게 안 빠지는 풀이 많았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힘든 풀뽑기를 다 하고 처음에 심었던 감자를 캐다. 작았지만 내가 키운 감자를 캐다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았다. 우리 땅은 기름지지가 못해서 감자가 조그마했다. 그 감자를 캐서 바구니에 담아서 경주 공고에 들고 왔다. 그러고 손 씻으려 하는데 그 밑에 감자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손을 씻는 겸 감자를 같이 씻었다. 다 씻고 나니 내 손은 반짝반짝 빛이 났다. 그냥 씻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었다. 다 씻은 감자는 삶고 조그만 감자는 생으로 조금

까맣게 되어 있었다. 뜨거우면서도 맛있었는데, 손이 새까맣게 되었다. 까만 것을 김형균 얼굴에 묻혔다. 그러니 김형균도 쫓아오면서 묻히려고 했다. 결국에 얼굴에 묻었지만 말이다.

그리고 고추도 땀다. 익은게 별로 없었다. 김성대 선생님께서 가지도 따서 주셨다. 그 다음에 경주공고로 가서 땅콩이랑 열무를 나누어 주셨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아이들 있는 곳 반대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땅콩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고 가서 받았다. 열무도 받았다. 하마터면 못 받을 뻔 한것이다.

<농사일지에 쓴 글 9>

오늘은 밭농사를 하는 마지막 날이다. 날씨가 아주 쌀쌀하면서 추웠다. 그래도 열심히 무를 뽑았다. 무 뽑기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보기보다 쉬웠다. 고추줄긴가?? 아무튼 간에 뽑고..했다. 오늘은 일을 많이 하지도 않고 ,!!! 끝이 났다.

4.한층 커진 우리들의 모습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1년 동안 농사체험활동을 하였다. 3월에 만나 땅을 일구고, 모종을 심고, 뜨거운 햇빛 아래 풀을 뽑고 하였다. 감자, 고구마, 옥수수, 땅콩을 수확하여 같이 삶아 먹으면서, 거두어들이는 농작물을 한보따리씩 안고 집으로 돌아 갈 때 우리는 무엇이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다.

자기 자식을 가꾸고 어루만지듯이 우리들은 어설피게나마 자연에 순응하며 농사를 지었던 우리 할아버지·할머니를 흉내 내보았다.

11월 모든 것을 거두어들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밭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가슴속을 짝 채우는 보람을 가득 담을 수 있었다.

2004년 환경학교에 참여한 아이들은 훗날 생태적 환경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감성을 키운 시간이었다면 만족한다.

II. 부처못 탐사 활동

1. 부처못이란?

부처못은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에 위치한 못으로 주변에 목이 잘린 돌부처(비로자나불)가 있기 때문에 부처못이라 부른다. 주변 농지 농업 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주변에 고인들 2기가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넘어 여근곡이 보인다. 여근곡을 오르는 동네 입구에는 초등학교 6학년 5명이 둘러쌀 정도로 큰 왕버들이 있다. 못득에는 수양버들과 소나무 여러 그루가 있어 운치를 자아내고 있다. 동네사람들의 이야기로는 간혹 사진 찍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7월부터 인간들의 탐욕으로 낚시터로 바뀌었다. 평상시에도 동네 사람들의 낚시터로 이용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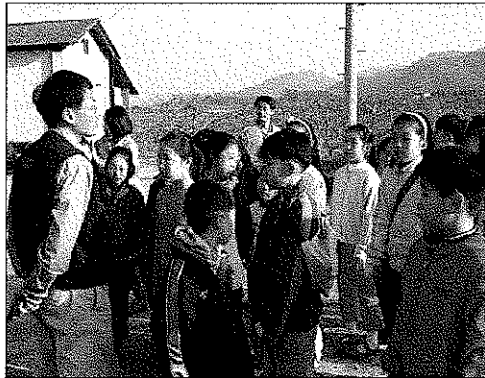
2. 부처못 탐사 활동

2002년에 가시연¹⁾이 자라고 있다고 경주신문과 포항MBC에 소개되었다. 2002년 10월경에 현지 답사 결과 가시연을 비롯하여 마름·자라풀·줄풀·큰고랭이·부들 등의 수생식물들이 자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환경학교 학생들과 월 1회 활동 계획을 세우고 탐사활동 시작했다.

가. 부처못과 처음 만남

2003년 3월 29일 환경학교 입학식과 감자심기를 마친 후 부처못에 도착하여 이곳에서 만나게 될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직 눈에 보이는 생명들은 찾아 볼 수 없었지만 아이들의 마음에는 기대감으로 차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처음 찾은 부처못>

1) 특정야생동식물목록 식-57호였으나 지금은 보호목록에서 해제되어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가 없으며 점점 주변 지역의 오염으로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음

<탐사 활동 후 글 1>

부처못 탐사를 하기 위해 부처못으로 갔다. 우리는 건천에 있는 부처못에 도착을 해서 맨 처음 안내를 해주신 선생님의 안내를 다시 들었다. 그런데 부처의 몸은 있는데 얼굴이 없었다. 좀 이상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에 올 때 부처못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더 잘 알기 위해 부처못을 한바퀴 돌았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기를 끊으려고

목을 잘랐다고 했다.

부처못을 돌아 개구리를 봤는데 황소개구리는 죽어서 그런지 물위로 뒤집어 젖서 떠 있었다. 조금 징그럽긴 하였지만 한편으론 불쌍하기도 했다. 또 청개구리도 봤다. 청개구리는 몸집이 황소개구리의 몸집보다 훨씬 작았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우릴 안내해 주신 선생님께서 버들 껍질을 잘라서 피리를 불어 주셨다. 피리소리는 리코더나 단소보다 소리가 좋았다.

<탐사 활동 후 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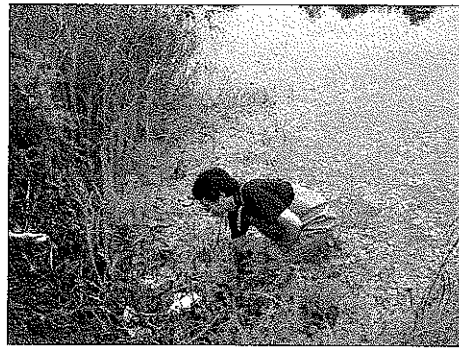
그리고 부처못에 가서는 뒤에 오봉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조금 설명해 주셨는데, 산의 모양이 울룩불룩한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부처가 돌에 새겨져 있었는데, 머리부분이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생물들이 부처못 안에 있다고 하니 빨리 여름이 되어서 그런 많은 생물과 식물들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다시 온다고 하니 정말 정말 기대가 됩니다.

<탐사 활동 후 글 3>

검자를 심고 부처못으로 간 우리들은 부처못에 가서 차근차근 둘러보았다. 부처님목이 베어나간 모습이 좀 불쌍했다.(이런 말 해도 되나?) 부처님목이 사라지니 부처못에서 살고 있던 황소개구리가 배가 튀어나오도록 물위에 떠 있는 게 아닌가! 마치 부처님이 보살피지 않은 곳 같았다. 더 돌아보고 있는데 풀숲에서 뭔가가 튀어 오르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청개구리였다. 아직 죽지 않은 생물들이 있었던 것이다.

다 돌아 보고 난 후 못에 있는 우거진 수초들을 찬찬히 잘 살펴보고 다음에 오면 어떻게 변해있을지 궁금함을 가지고 돌아왔다. 다음에 올 때는 개구리밥도 챙겨서 와야지~ ^^*



<탐사 활동 후 글 6>

지난번에 갔을 때 보지 못한 생물들도 많이 있었다.

풀도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그리고, 푸르미자연환경학교 교장선생님이라고 해야되나???

하이톤 간에, 그 선생님께서 가슴까지 오는 장화??? 를 신고 못에 들어 갔다. 예전에 봤던 자라풀과 마름도 보았다. 물 밑에서는 예전에는 보지 못한, 우렁이가 있었다. 우렁이를 몇 마리를 잡고, 관찰을 하였다. 어떤 우렁이는 먹이를 먹고 있었는지, 껍질에서 몸을 빼고 있었다. 뭘 먹는지 는 모르겠지만 정그러웠다.

관찰을 다하고 기록장에 그림을 그려 놓고, 가시연꽃을 보러 갔다. 연꽃이 아직 자라지는 않았지만, 잎이 자라 있는 것을 보았다. 대부분 작은 잎 들이었다. 가다가 커다란 잎이 있었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잎에 가시가 돋아 나 있는것을 보았다. 그 가시연꽃이 자라면 매우 크다고 한다. 연꽃이 있는 위치도 점으로 그려 놓고 했었다.

다음 모임은 7월12일!!!! 그날 부쳐못에 가면 연꽃도 약간피고 꽃잎도 커지면서 가시도 많이 날것 같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힘이 더 든 것 같았다.

<탐사 활동 후 글 7>

선생님께서 팽귤이라는 옷을 입으시고 마름, 자라풀, 우렁이 등을 채집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자세히 보았다. 거기서 점자리 허물과 날개를 말리는 점자리도 보았다. 금방 날아 갈 것 같아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연꽃은 연꽃인데 가시달린 연꽃이 잇는 곳에 표시도 해 보았다. 요번에는 가시가 많이 자라지 않았지만 다음에 와서는 길죽한 가시를 보고 싶다.

<탐사 활동 후 글 8>

부처못에 갔다. 처음에 왔던 그런 부처못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쉼직한 못 뿐이었는데... 자꾸 자꾸 가보니 점차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마름과 자라풀 이름 모를 풀이 점점 많이 자라고 있었다. 아직 이름 모를 풀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야 하고 더 자라날 풀, 아직까지도 잠을 자고 있는 풀.

우리와 만날 준비가 다 끝나고 나오려 하는 풀 등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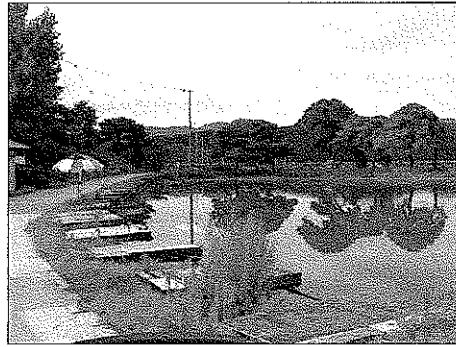
마름과 자라풀에 대해서 한 번 더 수집에 적었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안속 까지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이번 탐사는 더 유익했다. 더 기쁜건 가시연꽃의 잎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부처못에 온 이유도 가시연꽃 때문인데 그 주인공이 드디어 모습을 들어 냈다는 것이다. 큰 것이 손가락 세 개 밖에 안되어서 아직 많이 어린 것밖에 없다. 작은 것은 잎에 색깔이 다른 점들이 있고 그런대로 많이 큰 것은 조그만 가시가 돌아 나 있었다. 그 가시연꽃의 잎을 보자 장미가 생각났다. 책에서 사진을 보니 장미보다 특색이 있는 우리나라 꽃인 가시연꽃이 더 예뻐보였다. 가시가 난 연꽃.....

특이하고 희귀식물이고, 선인장 같은 느낌과 장미 같은 느낌이 들지만 다른 나라 꽃이 아닌 우리나라 꽃 그 꽃이 웬지 기분을 좋게 했다. 그래서 이번 탐사는 더 즐거웠다.

라. 그러나 부처못은!

2003년 7월 12일 부처못을 찾았다. 아주 많은 가시연을 발견하였다. 또한 쇠물닭, 물뺨을 볼 수 있어 하나의 작은 생태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인간들이 탐욕으로 낚시터로 변해 탐사활동은 중지하고 말았다.



<탐사 활동 후 글 9>

부처못을 다녀왔다. 부처못은 전보다 물이 깨끗해 진 것 같았다.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시연꽃이 얼마나 더 많이 피었는지도 보았다. 가시연꽃이 핀 자리를 표시하는 것도 주셨다. 출발은 우리 학교가 제일 마지막으로 출발을 하였다.
예전보다 풀도 많이 없어졌다.(누가 찢었나???)
가시연꽃이 전보다는 귀여웠다. 표시를 많이 하지는 못하였다.

마.새로운 탐사활동

2003년 8월 23일 다행히 새로운 탐사 활동지를 찾았다. 건천읍 운대리에 위치한 운대못이다. 이 운대못에는 선덕여왕 전설이 있는 나왕대가 바로 근처에 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못주변에 살고 있는 생명들에 대한 1년 동안 변화를 관찰하려는 계획은 취소하고 못을 옮겨 가시연의 자람만 탐사하는 활동으로 바꾸었다.

7월에 비해 훨씬 많이 자란 가시연을 만날 수 있었다. 또한 연도 아주 많이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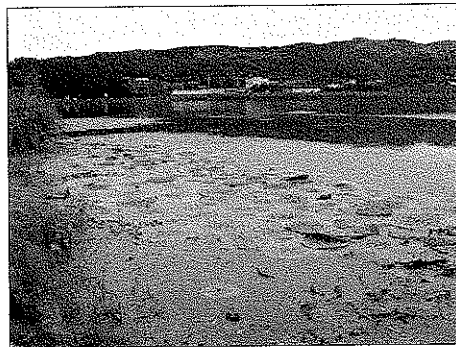
<탐사 활동 후 글 10>

너무 더웠다. 부처못은 가시연꽃을 다 걷어내고 낙시터를 만들어서 부처못 탐사를 못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운대못에 갔다. 운대못이 부처못보다 나아 보였다. 그리고 가시연꽃도 있었다. 엄청 크고 많았다.

중간에 가다가 검은 것을 보았다.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많이 죽어있었다.

곰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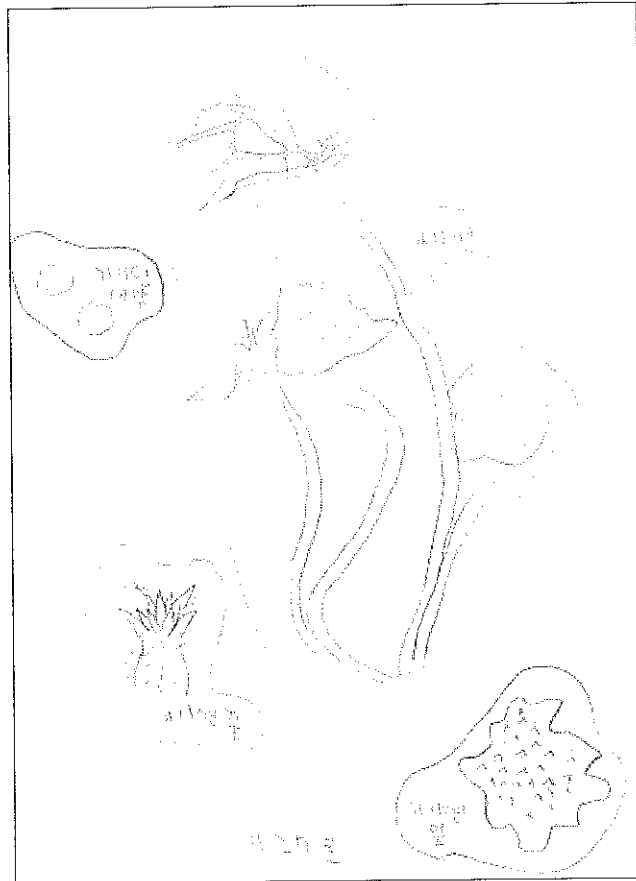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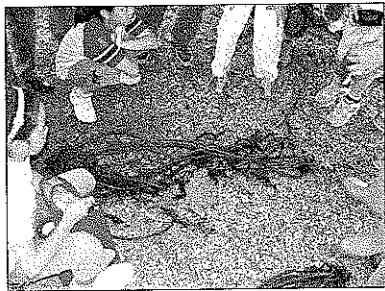
연꽃, 연밥도 그리고 연꽃잎에 물도 뿌렸다. 물이 안 묻었다.



바.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가시연

9월 27일 운대못에 도착하였다. 가시연꽃은 볼 수 없었다. 가시연꽃은 지고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고 있었다. 가시연 한줄기를 뽑아 전체적인 모습을 관찰하였다. 6월부터 본 가시연의 한살이를 정리하고 마름의 한살이도 정리하였다.

계획했던 것을 옮기지 못한 마지막 탐사활동이었다.



3. 환경 시민 의식을 키우는 기회

탐사 활동을 통해 자연의 참모습을 직접 체험하면서 자연을 알게 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으며 잃어버리기 쉬운 자연의 고마움을 재인식하게 되며, 산업발달과 도시화로 삭막해지는 우리 생활을 윤곽하게 할 수 있다.

부처못 주민들은 "3~4년 전에 농업 기반 공사에서 연못 바닥 준설 공사를 하고 난 다음해부터 이런 가시연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며 "그냥 연못에서 자라나는 풀 정도로 생각했지 멸종위기에 놓인 희귀한 식물이라

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놀라워하고 있을 정도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 운대못 주민들은 몸에 좋다고 가시연 열매를 채취하여 이를 먹고 있었다.

부처못 탐사 활동은 희귀식물인 가시연뿐만 아니라 주변의 작은 들꽃 하나라도 보호할 수 있는 시민의식(생태적 감수성)을 키우고 일련 활동을 통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활동이라 생각된다.

Ⅲ. 여름 숲속 학교

요즈음 아이들은 숲에서 놀 줄 모른다. 도시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콘크리트숲에 둘러 싸인 채 가장 감수성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그냥 보낸다. 1박 2일의 짧은 기간이나마 숲에서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시간을 보내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감수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울산 숲 자연 학교는 <울산생명의 숲>에서 로 폐교된 초등학교를 활용하여 자연 교육 활용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이 곳에는 지도 강사와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 아주 적합하다.

1.일시 : 2003년 7월 26일 ~ 27일

2.장소 : 울산 숲 자연학교(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3.참석 : 교사 10명, 학생 30명

4.활동내용:

가. 나무 목걸이 만들기

준비된 통나무를 톱으로 잘라 개인 목걸이 만들어 자기의 이름보다는 별명을 적어 같이 참여한 아동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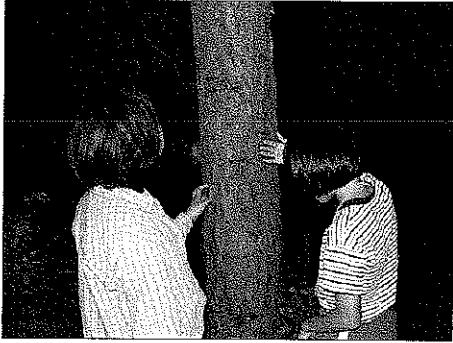


나. 수생 생물 관찰

숲속 학교 주변에 작은 개울이 흐른다. 아이들과 함께 반도와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물 속에 살고 있는 생명들을 찾아보고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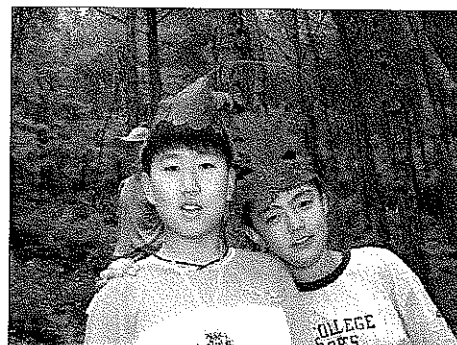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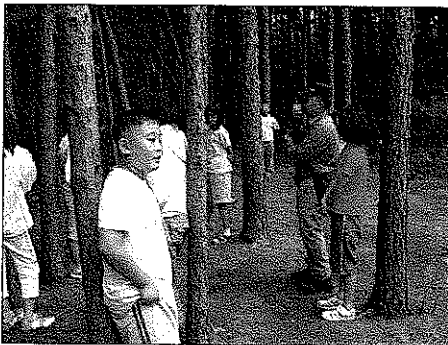
다. 야간 숲 탐험

평상시에 잘 접하지 못하는 시간이다. 숲 속에서 풀벌레 소리를 들어보고, 나무를 껴안고 자기의 소원을 들어 보고, 랜턴 없이 앞사람에 의지하여 길을 걷고, 산길을 혼자 내려올 때 자연이 주는 느낌을 스스럼 없이 받아드리는 시간을 갖는다.



라. 주간 숲 탐험

산길을 오르기까지 도로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들꽃 공부, 숲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운 공부, 소나무 숲에서 즐기는 삼림욕, 자연과 하나 되는 <뱀눈이 되어>라는 프로그램, 숲에서 즐길 수 있는 왕관 만들기, 나무 숨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진기를 이용한 수맥 흐르는 소리 듣기 등은 요사이 아이들이 가지는 생태맹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박상호가 따라 왔을 때는 무서웠지만, 누군지를 알고 나니 무서움이 사라졌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감자와 고구마도 구워 먹었다. 그 다음 이불을 깔고 놀다가 잠을 잤다.

7월 27일

아침에는 산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꽃, 나무를 보았다. 처음 듣는 나무 이름도 있었다. 가장 생각나는 것이 서나무와 떼죽나무이다.

서나무의 다른이름도 있었다. 그 이름은 근육나무와 서어나무이다. 근육나무라는 것이 웃기다. 나무에 근육이라도 있는 것일까?

떼죽나무는 나뭇가진가? 꽃잎인지는 몰라도 물에 넣어두면 물고기들이 떼로 기절한다고 해서 떼죽나무라고 지었다고 한다.

그리고 거울을 콧등에 대고 거울을 보면서 걷는데 꼭 하늘을 걷는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앞에 나무와 백는 것 같기도 했었다. 약간은 무섭기도 했지만 재미있었다.

여러 가지 나무이름과 꽃이름을 알고 내려와 손수건에 염색을 했다. 다른 것과는 달랐다. 나뭇잎을 수건 뒤에 두고 등글고 약간 큰 나무막대기로 찍는 것이다. 다하고 나니까 손이 별겠다. 그래도 하고 나니까 이뻐다. 기념사진도 찍었다. 너무 재미있었다.

짧은 하루였지만 너무 재미있었고 다른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서 기분도 좋았다.

5. 숲과 친구가 되어

1박 2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여한 선생님이나 아이들에게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

왕관만들기·목걸이만들기·손수건 염색하기 등을 통해 자연에서 얼마든지 훌륭한 놀이감을 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손수건 염색하기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창의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주·야간 숲 체험을 통해 숲이 우리에게 주는 신비감과 이로움을 충분히 맛볼 수 있을 수 있었으며 숲과 친구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인성을 기를 수 있었다.

IV. 겨울 철새 학교

우리 주변에는 많은 새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철새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1박 2일 간의 철새 학교를 통해 아이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환경 구성 요소인 철새의 존재를 일깨워 자연 환경 관심을 갖도록 하고자 한다.

우포늪 생태 학습원은 창녕 환경 운동연합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폐교된 학교를 활용하여 우포늪의 생태와 철새들을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곳이다. 이 곳에도 많은 프로그램과 지도 강사들이 있어 준비되어 있다.

1.일시 : 2003년 12월 27일 ~ 28일

2.장소 : 우포늪 생태 학습원

3.참석 : 교사 10명, 학생 30명

4.활동내용:

가. 퀴즈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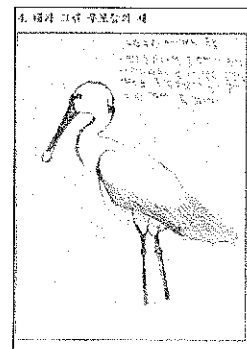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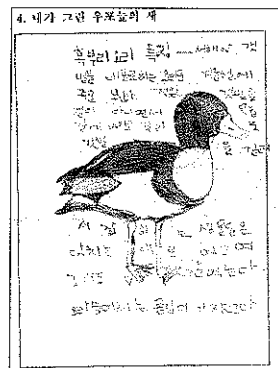
철새와 우포늪에 관련된 비디오 시청 후 즉석에 퀴즈를 내고 풀어 봄으로써 우포늪과 이 곳을 찾는 철새들에 대한 공부를 한다.



나. 새 그림 그리기

우포늪을 찾는 철새 사진을 보고 새 그림을 그려 본다.

새의 특징을 공부하기에 좋다.



바. 기러기 행동 특성 빙고 게임

기러기의 행동 특성을 공부하는데 아주 좋은 게임이다. 기러기의 경계하는 모습, 먹이를 찾는 모습, 쉬고 있는 모습, 나는 모습, 앉는 모습, 서로 다투는 모습, 깃을 다듬는 모습 등을 그림으로 나타낸 빙고판을 보고 스키프를 이용하여 기러기의 행동 특성을 찾아내는 공부이다.



<철새학교 후 아이들이 남긴 글 1>

이번 철새학교에서 나는 처음 철새의 종류, 사는 곳 등을 배웠다. 우포늪에서 망원경으로 겨울 철새 떼들을 보며 빙고 게임을 하였다. 자는 모습, 경계하는 모습, 다리 들며 자는 모습, 착륙하는 모습..... 그런데 평화롭게 누리고 있는 철새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독수리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오리(철새)들의 커다란 목소리에 기가 죽어 그냥 가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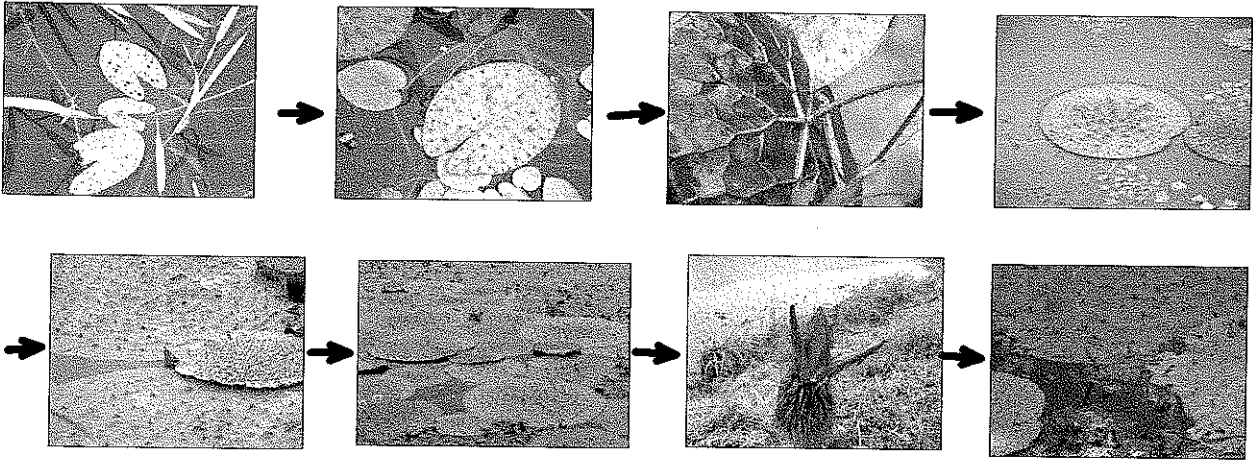
우포늪 전망대에 가보니 더 많은 철새들이 있었다. 우포늪에 오기를 절한 것 같다.

<철새 학교 후 아이들이 남긴 글 2>

우리는 우포늪에 사는 작은 새들과 생물들에 대해 알아보는 비디오를 보았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을 100번 듣는 것 보단 1번 보는게 나을거라 생각하고 많은 생물들의 쉼터가 되어 주는 우포늪으로 갔다. 우포늪에 걸려면, 자연과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면,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옷과 자세를 낮추며 소곤소곤 얘기해야 한다고 해서 우린 새들도 우리와 같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다. 망원경으로 새들이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쁘게 꽃단장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너무나 신기하고 곧장 만나고 싶기도 했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아 실망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새들은 자기의 개성에 따라 몸 색깔과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연의 소중한....

어때까진 겨울 철새들은 우리 나라를 왔다가 그냥 바람처럼 스쳐가는

가시연 자람 과정



부처못에서 만난 생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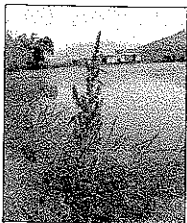
<실잠자리>

<개구리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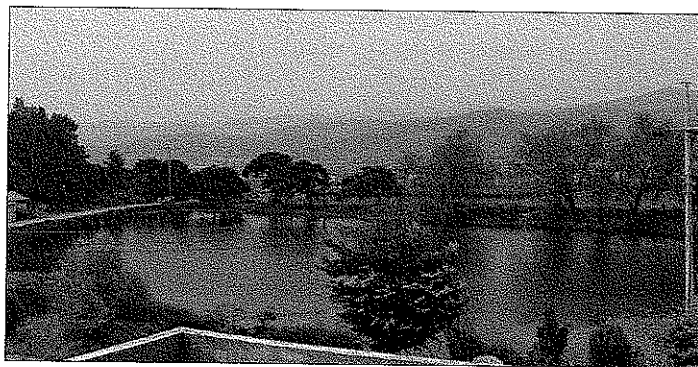
<갈대>

<검정말>

<별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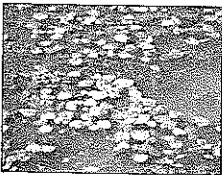
<소루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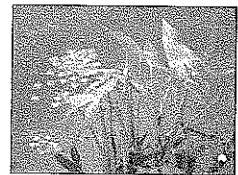
<부처못 모습>



<창포>



<자라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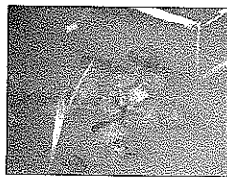
<보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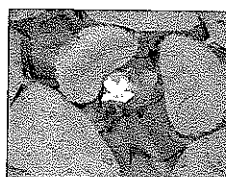
<큰고랭이>



<랭이밥>



<마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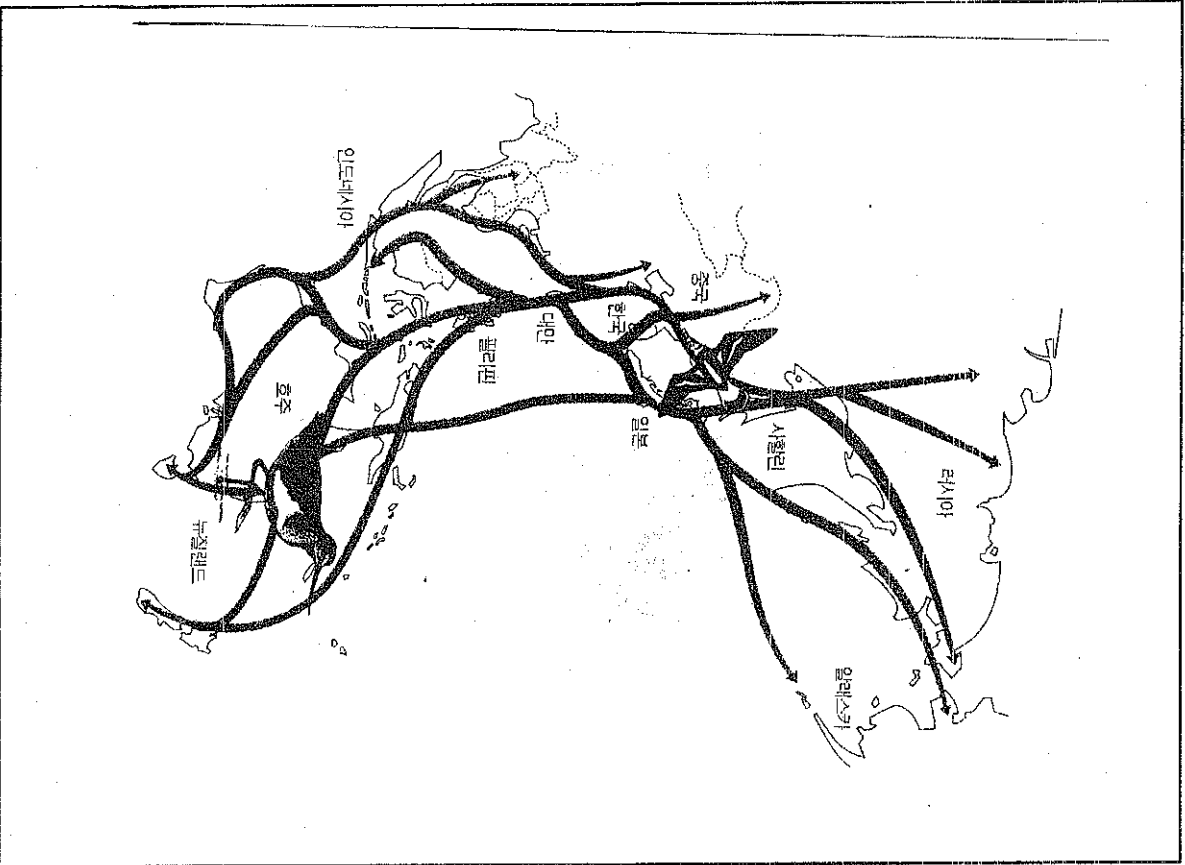


<마름꽃>



<마름열매>

1.철세 이동 경로



6. 노래가사 바꾸어 부르기

원곡 : 나뭇잎에

1. 낮에 놀다 두-고은 나뭇잎에는 엄마결에 누-위도 생각이나요.
푸른달과 흰-구름 동-실떠-가는 연못에서 사-알살 떠다-니겠-지
2.연못에다 떠-위는 나뭇잎에는 엄마결에 누-위도 생각이나요-
산랑산랑 바-람에 소-근거-리는 간일새를 혼-자서 떠다-니겠-지

우리 모듬이 만든 노래

1. 낮에 놀고, 고운 구름은 푸른달과 흰구름이
연못에 생각하니 나뭇잎에 푸른달과 흰구름이

~~연못에다~~ ~~떠-위는~~ ~~나뭇잎에는~~ ~~엄마결에~~ ~~누-위도~~ ~~생각이~~ ~~나오-~~
연못에다 생각하니 나뭇잎에 푸른달과 흰구름이

2. 연못에 푸른달과 흰구름이 생각하니 푸른 달과 흰구름이

연못에 푸른달과 흰구름이

연못에 푸른달과 흰구름이

연못에 푸른달과 흰구름이

5.우포늪에서 만날 수 있는 새들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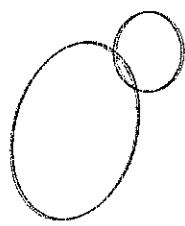
- ◎**흰뺨검둥오리** : 다리가 선명한 오렌지색이고 부리는 검은색이나 끝이 황색이다.
- ◎**왜가리** : 목이 영어의 S자 모양이다. 머리는 흰색, 검은색의 줄이 눈에서 뒷머리까지 연속된다. 등은 회색, 배는 흰색, 가슴 옆구리에 회색의 줄무늬가 있다.
- ◎**청둥오리** : 꼬리 뒷부분이 등쪽으로 돌출되어 있다.
- ◎**홍머리오리** : 붉은 머리에 하얀 아이스크림을 뒤집어 놓듯한 흰색줄이 있다.
- ◎**넓적부리오리** : 부리가 넓적하게 생겼다.
- ◎**고방오리** : 꼬리가 뾰족한 편처럼 생겼다.
- ◎**흑부리오리** : 몸 전체에 검은색과 흰색이 뚜렷하게 구별된다. 수컷은 튀어나온 혹이 있다.
- ◎**노랑부리저어새** : 부리 끝이 노랗고 주걱처럼 생겼다. 먹이를 찾을 때 머리를 좌우로 흔든다.
- ◎**쇠오리**:머리는 고동색, 눈과 귀주변에 녹색의 무늬, 옆구리에 회색으로 눈에 잘 띈다.
- ◎**큰고니**:부리는 끝이 검은색이고 전체는 노란색이다. 목을 곧게 세우고 헤엄친다.
- ◎**큰기러기**:부리는 검은색이나 끝부분에 황색의 띠가 있다. 다리는 오렌지색이다.
- ◎**쇠기러기**:부리는 분홍색이고 이마는 흰색이다.
- ◎**중대백로**:백로중 가장 크다. 여름철 부리는 검은색, 겨울에는 노란색이다. 다리와 발은 검은색이다.
- ◎**중백로**: 부리는 노란색이다. 부리끝이 검은색이다. 다리와 발은 검은색이다.
- ◎**쇠백로**: 부리와 다리는 검은색이다. 발은 노란색이다.

2.우포늪 퀴즈

- 1)
- 2)
- 3)
- 4)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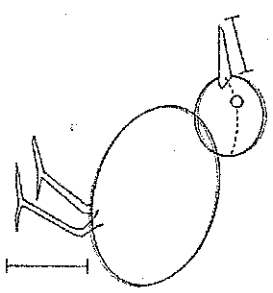
3. 새 그림 그리는 방법

1. 먼저, 머리와 몸의 대략적인 크기와 장수를 결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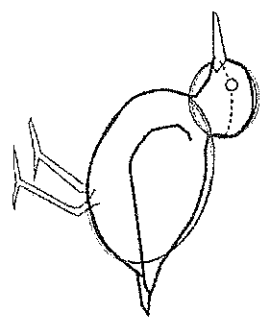
* 백묘와 같이 목이 긴 새는 머리와 몸을 분리해서 그림니다. 이 선은 나중에 지우므로 연필 등으로 잘 그림니다.

2. 단음은 부리와 다리를 그리고 눈은 그려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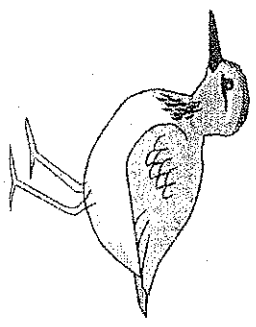


* 다리와 부리의 길이가 같거나? 짧습니까? 머리나 몸의 크기와 비교해 봅시다.

3. 몸의 모양을 그려줍니다.



4. 몸의 색과 모양을 그림니다.



4. 내가 그린 우포늪의 새

우포늪

